

여수, '지역 정착'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전세·주택 구입 대출이자 등 맞춤형 '5종 패키지' 추진 주거비 부담 완화...“안정적 생활 유지정책 지속 확대”

여수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45억원을 투입, '주거지원 5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거지원 5종 패키지는 청년월세 지원과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월가구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원 이하) 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3)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만 18~45세 청년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여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실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25만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

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여수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이 봄의 시작과 함께 동천 물길을 따라 항해하는 '정원드림호' 운항을 재개했다. 사진은 스페이스브릿지를 배경으로 운항중인 정원드림호.

순천만국가정원, 봄 알리는 '정원드림호' 운항 재개

호수정원~동천 양복 약 5km...색다른 정원 경험 제공

순천만국가정원이 봄의 시작과 함께 동천 물길을 따라 항해하는 '정원드림호' 운항을 재개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을 출발해 동천을 따라 양복 약 5km 구간을 운항하는 정원드림호의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운항은 지난해 11월 운항 종료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관람객들은 물 위에서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으

로 정원의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정원의 풍경과 동천의 자연 경관이 어우러지며 걸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약 30~40분 동안 진행되는 선상 투어에서는 동천의 자연 경관과 순천만국가정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 단순한 뱃놀이를 넘어 정원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원드림호는 지난 2023년 동천의 옛 뱃길을 복원하는 의미를 담아 처음 운항을 시작한 이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대표적인 체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원과 도심에 있는 새로운 관광 동선으로 주목받으며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정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원드림호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항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운영은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구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탑승시간 기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만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진정한 물길 위에서 바람을 느끼며 정원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은 정원드림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봄을 기억하는 설레는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 빠빠용Zip, 문화·생활 공유지 '우뚝'

생활의 달인 23일까지 모집...공간 등 지원

장흥군은 최근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거점으로 재생한 '빠빠용Zip'에서 '2026년 서로살림터 운영 활동가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립의 상징이었던 교도소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생하는 '서로살림터'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동가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기술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군은 현재 시범운영에 참여할 활동가를 23일까지 모집 중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창작·차유), 생활기술(수리·업사이클링), 생존기술(요

리) 등이며, 콘텐츠를 보유한 개인이나 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방법은 군청 또는 빠빠용Zip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로 선발된 8개 팀은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성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5팀은 12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간다. 선정된 활동가에게는 활동 지원금과 공유공간 무상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빠빠용Zip이 주민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생활 실험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활동가들의 참여로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구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1966년 이전 출생 군민 대상

구례군이 고령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 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신경통,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비용이 비교적 높아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접종을 망설였다.

군은 이에 지난 2020년부터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높은 호응을 반영해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구례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2026년 기준으로 1966년 이전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단, 이미 대상포진 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례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을 앓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는 접종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1-780-2912·203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발병 시 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며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 배알도 별빛야영장 본격 가동

섬정원·섬진강 별빛스카이 등과 연계

광양시가 '배알도 별빛야영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바다가 맞닿는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캠핑과 휴식은 물론 문화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광양시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영장은 카라반 10대를 포함해 총 100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66면을 우선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34면은 오는 9월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샤워장, 개수대, 세족장, 커뮤니티센터 등의 편의시설과 버스킹 공연장, 넷제형시설, 어린이

집라인, 바타분수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

야영장 이용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 '캠핏'(www.camfit.c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 일정과 이용요금, 시설 현황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자연 속에서 캠핑과 휴식,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며 "배알도 섬정원과 섬진강 별빛스카이, 정병욱 가족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본격 추진

추진단 발대식 개최...마을 맞춤형 컨설팅

곡성군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행사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군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민원실, 인구정책과, 군민협력과, 농정과 등 관계 부서와 한국전력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조직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발전소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 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오는 2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 사업 시행

지침 수립 이전에 마을별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마을 합동조합 설립 절차·운영 방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부지와 행위 제한 여부 검토, 예상 발전량과 사업비 분석을 통한 수익성 검토,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마을 맞춤형 지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지난 9일 발대식에서 사업 설명을 맡은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역에너지 모델이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마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더 많은 마을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